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4, 411~434.
http://dx.doi.org/10.20406/kjcs.2021.11.27.4.411

그릿(Grit)과 열정은 변별되는가? 다집단요인분석을 이용한 비교문화 연구*

김 정 은[1)] 양 수 진†

본 연구는 그릿과 열정 구인이 변별되는지를 검증하고 동, 서양 문화 간 두 구인의 관계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생 208명과 미국 대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형태동일성과 부분측정단위동일성이 성립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그릿의 두 요인인 흥미의 지속성 및 노력의 꾸준함과 열정의 두 유형인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 각각이 서로 잘 구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흥미의 지속성이 적응적인 조화열정과는 정적인 상관을, 부적응적인 강박열정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에,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노력의 꾸준함 뿐만 아니라 흥미의 지속성도 조화 및 강박열정 모두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그릿의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서는 그릿이 열정과 관련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개념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만 설명되어 왔던 그릿과 열정 간의 변별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서구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그릿과 열정이 문화적 토양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그릿(grit), 조화열정, 강박열정, 다집단 요인분석, 비교문화 연구

---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내용에 기초한 것이며, 202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장훈 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 교신저자: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073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4053, E-mail: sujinyang@ewha.ac.kr

그릿이란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흥미를 지속하는 비인지적인 특성이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Duckworth 등(2007)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그릿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화 작업은 서구 영어권 국가를 넘어 한국, 중국,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와 문화, 언어 및 인종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다(임효진, 2017, Arco-Tirado, Fernández-Martín, & Hoyle, 2018, Datu, Yuen, & Chen, 2017a, Duckworth & Quinn, 2009, Li, et al., 2018, Tyumeneva, Kuzmina, & Kardanova, 2014). 그러나 개인의 목표 설정과 방향성, 그리고 성취를 위한 열정의 발휘와 같은 동기 및 정서적 반응과 해석이 각각의 문화권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예: Yu & Yang, 1994), 그릿을 문화 보편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김정은, 이수란과 양수진(2018)은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형성된 그릿이 서양에서 개발되고 논의되어 온 그릿의 개념적 정의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인 유형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그릿 또한 문화적 환경을 통해 특수하게 발달할 수 있는 개념임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비교분석하여 그릿의 구성개념에 대한 문화 보편성을 확인하고, 유사한 특성인 열정과 변별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릿 개념을 제안한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하면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흥미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구성된다(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먼저, 노력의 꾸준함은 단순한 열심을 넘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패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계속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흥미의 지속성은 장기간 목표와 흥미를 자주 또는 쉽게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그릿은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높은 수행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중도탈락률을 부적으로 예측했다(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권대훈, 2016;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Strayhorn, 2014). 특히, 그릿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뛰어난 성취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지능이나 해당 분야에서의 재능 및 경험,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높은 수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손영우, 2013; 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et al., 2014). 뿐만 아니라 그릿은 주관적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소진은 부적으로 예측하는 등 심리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edé, Tynan, & Harms, 2017; Salles, Cohen, & Mueller, 2014; Singh & Jha, 2008; Vainio & Daukantaite, 2016). 결국 그릿은 탁월한 수행과 같은 좁은 의미의 성공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인 건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그릿과 유사한 개념들 간의 변별을 위한 노력은 주로 자기 조절(self-control) 또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구인과 그릿은 관련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조절은 주어진 과제와 관련이 없는 충동성을 억제

하는 즉각적인 조절 능력이라면 그릿은 단기간의 강렬함이 아닌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지구력으로 오랜 기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흥미와 노력을 지속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Duckworth & Gross, 2014). 또한 Duckworth 등(2007)은 특정 목표와 흥미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릿의 흥미의 지속성 요인이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그릿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실성이 서로 변별되는 요인임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다(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Lim, Ha & Hwang, 2016).

Duckworth(2016)에 따르면 그릿이 발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는 것이 이뤄져야 하며, 자율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일을 지속할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Duckworth 등(2007)은 몇 개월 또는 수년의 긴 시간 동안 흥미와 목표를 일관되게 지속하는 흥미의 지속성이 단순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대안들에 대한 미지(未知), 또는 타인의 기대에 대한 순응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흥미에 의한 장기적인 지구력, 즉 열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릿과 열정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그릿과 열정 간의 관계 및 변별성을 검증하고, Duckworth 등(2007)의 주장처럼 흥미의 지속성과 열정 간의 관련성이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열정이란 자신이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며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한 끌림으로 정의된다(Vallerand et al., 2003). 열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자신이 열정을 느끼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자기 성장을 이루며 해당 분야에서의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8; Vallerand et al., 2007). 그러나 때로 열정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에 기반을 둔 이원론적 열정 모델(Dualistic Model of Passion)에 의하면 열정에는 상반된 두 유형, 즉 적응적인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과 부적응적인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이 존재하며 각 열정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조적이다(Vallerand, 2015; Vallerand et al., 2003). 먼저, 대상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자율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친 조화열정이 높은 사람의 경우, 열정의 대상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이에 압도되지는 않으며, 자유의지를 갖고 열정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열정의 대상이 삶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룬다. 반대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친 강박열정은 조화열정과 달리 열정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 인정, 사회적 수용감 등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내 · 외적인 압박감이 큰 열정이다. 이로 인해 강박열정이 높은 사람들은 열정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적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열정 활동에 대한 통제력도 낮아 열정의 대상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쳐 삶의 다른 측면들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상충된다. 결국 조화열정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몰입, 활력 등 긍정적인 심리 적응을 보이는

반면에, 강박열정은 경직된 지속성을 보이며 낮은 몰입, 높은 불안, 소진,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을 보인다(Curran, Hill, Appleton, Vallerand, Standage, 2015; Mageau, Vallerand, Rousseau, Ratelle, & Provencher, 2005; Ratelle, Vallerand, Mageau, Rousseau, & Provencher, 2004; Vallerand et al., 2003).

그러나 그릿 척도 중 흥미의 지속성을 묻는 문항들(예, '나는 한동안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에 사로잡히지만 곧 관심을 잃게 된다(역).',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역).')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흥미의 지속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개념적 정의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 때문에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존의 그릿 척도에서는 열정의 정의인 대상에 대한 애정과 높은 가치평가를 묻고 있지 않으며 적응적인 조화열정과 부적응적인 강박열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Vallerand, 2015). 또한 조화열정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열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정 활동 참여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항상 가정하는 그릿과 차이가 있다. 더불어 Duckworth 등(2007)은 열정에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노력의 꾸준함이 그릿을 열정으로부터 구별 짓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개념적인 구별로 그릿과 열정 간의 변별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그릿과 열정 간의 변별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더욱이 흥미의 지속성은 문화 간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다. 그릿 개념이 개발되고 주로 논의되어 온 서구 문화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주된 특징인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개인의 욕구와 목표가 행동의 기준이 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Duckworth와 그녀의 동료들의 주장처럼 흥미의 지속성이 스스로의 자율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열정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반면에 한국을 포함한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나'보다는 '우리' 의식이 강하며 집단 내 조화와 관계성을 중시한다(Hofstede, 1980). 이에 많은 상황에서 내집단의 기대와 요구가 개인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Triandis, 2001). 특히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서양과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고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온, 이진순, 2006). 따라서 한국이 속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흥미의 지속성은 부모와 같이 중요한 타인 또는 사회가 대신 결정해준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고려된다(Datu, Valdez, & King, 2016; Datu, Yuen, & Chen, 2017b). 결국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인내라는 그릿의 개념적 정의와는 달리 한국에서 흥미의 지속성은 개인의 열정과 상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그릿의 특성을 살펴본 김정은 등(2018)의 연구 결과, 그릿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화 및 강박열정의 수준이 모두 낮은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38.1%)을 차지했다. 더불어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효진(2017)의 연구에서 흥미의 지속성은 단순한 과제 지속성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정체

성의 탐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 Arnett, 2000)의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첫째, 다집단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그릿과 열정 간의 변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그릿의 개념적 정의대로 그릿과 열정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지를 살피고, 셋째, 이러한 관계가 문화 보편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릿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 간 차이가 가지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진입기(만 18~25세)의 미국과 한국 대학생 총 4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대학생의 경우 Amazon에서 운영하는 Mechanical Turk (MTurk)라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서비스를 활용하여 31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먼저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의 Invitation-based Panel을 대상으로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대학생 자료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서울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 대학생만을 추가적으로 50명 모집하였다. 이 중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25세의 대학생이 아니거나(미국: n=45, 한국: n=31) 열정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미국: n=10, 한국: n=102)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미국: n=12, 한국: n=4명) 이후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추가로 모집한 한국 여자 대학생들 중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설문에 응답한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동일한 내용의 설문에 응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인바이트에서 수집된 자료와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n=5).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미국 대학생 251명(남자: 89명[35%], 여자: 162명[65%]), 한국 대학생 208명(남자: 71명[34%], 여자: 137명[66%])이었다. 연령 평균은 미국 대학생 22.27세(SD=1.81), 한국 대학생 21.50세(SD=1.9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37, p<.001). 미국 대학생들의 인종은 백인이 가장 많았고(161명[64%]), 그 다음으로 흑인(30명[12%]), 아시아인(27명[11%]), 라틴아메리카계(21명[8%]), 기타(12명[5%])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The Short Grit Scale(Grit-S; Duckworth & Quinn, 2009)을 사용하였고,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수란, 손영우(2013)가 번안한 그릿 원척도(the original Grit Scale; Duckworth et al., 2007) 중 Grit-S에서 삭제된 4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의 지속성을 묻는 4문항(예, '나는 한동안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에 사로잡히지만 곧 관심을 잃게 된다(역).')과 노력의 꾸준함을 묻는 4문항(예, '좌절은 나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5])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을 포함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노력의 꾸준함과 흥미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Duckworth와 Quinn(2009)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

로 했을 때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흥미의 지속성 .79, 노력의 꾸준함 .78이었으며,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효진(2017)의 연구에서는 흥미의 지속성 .69, 노력의 꾸준함 .83이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흥미의 지속성의 내적 합치도는 반복적으로 낮게 보고되었는데 임효진과 윤여경(2017)의 연구에서는 .60, 류영주와 양수진(2017)의 연구에서는 .5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흥미의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 각각 .80, .76이었고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53, .72였다.

열정진단기준

연구 참여자에게 열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Marsh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열정진단기준 4문항을 사용하였고, 이를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2016)가 번안한 문항들을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먼저 본인이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하나 떠올린 뒤, 그 활동을 생각하며 열정진단기준 문항들과 이후 열정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활동에 대한 시간 및 에너지의 투자, 좋아함, 가치평가, 열정으로 여기는 정도를 묻는 4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게 하였다. Vallerand와 Houlfort(2003)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문항 총점의 평균이 4 미만인 경우 열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릿이 개발되고 논의되어 온 서양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릿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릿과 열정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그런데 열정이 없다고 분류되는 조사대상자가 많거나 각 집단 간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비율의 차이가 크다면 그릿과 열정 간의 상관 및 문화 차이를 확인하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고자 열정이 없다고 분류되는 조사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민성, 정예슬과 손영우(2016)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74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84였다.

열정

열정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Vallerand 등(2003)이 개발하고 Marsh 등(2013)이 수정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열정 척도(the Passion Scale)를 사용하였고, 이를 홍민성 등(2016)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열정 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이 활동은 내 삶의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룬다.')과 강박열정을 측정하는 6문항(예, '이 활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7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7])로 평정하도록 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Lalande 등(201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조화열정 .87, 강박열정 .86이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민성 등(2016)의 연구에서는 각각 .78, .75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조화열정 .79, 강박열정 .81이었으며,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조화열정 .81, 강박열정 .78였다.

문화 특성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 간 문화 특성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그릿 및 열정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화 특성으로서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살펴보았다. 개인지향 성취동기(Individual-oriented Achievement Motivation)란 스스로 설정한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자율적인 욕구 및 행동으로서 개인주의 사회에서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가정되며, 사회지향 성취동기(Social-oriented Achievement Motivation)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내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욕구로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보다 일반적일 것으로 가정된다(Yu & Yang, 1994).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Yu와 Yang(1994)의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측정하는 문항 중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각각 8문항씩 총 16개 문항을 추출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게 수정한 한국어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영어판은 Yang과 Yu(1988)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묻는 영어판 30문항과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묻는 영어판 30문항들 중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심리학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이 의미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판 문항들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문항들을 개별적으로 추출하고 불일치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한국어판과 의미가 동등한 영어판 개인지향 성취동기와 사회지향 성취동기 척도를 각각 8문항씩 총 16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개인지향 성취동기를 묻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가 있으며 사회지향 성취동기를 묻는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의 나에 대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가 있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전혀 아니다[1]~매우 그렇다[5])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지향 성취동기, 사회지향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개인지향 성취동기 .81, 사회지향 성취동기 .78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개인지향 성취동기 .80, 사회지향 성취동기 .83였으며,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각각 .86, .86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과 Mplus 7이다.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에 따라 연구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국과 한국에서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 간의 변별성을 검증하고 국가 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두 요인인 흥미의 지속성 및 노력의 꾸준함과 열정의 두 요인인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이 모두 구별되는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좋을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이를 모두 구별되지 않는 1요인 모형, 그릿과

열정을 각각 단일차원으로 가정하는 2요인 모형, 흥미의 지속성과 조화열정이 묶이는 3요인 모형(a), 흥미의 지속성과 강박열정이 묶이는 3요인 모형(b), 노력의 꾸준함과 조화열정이 묶이는 3요인 모형(c), 노력의 꾸준함과 강박열정이 묶이는 3요인 모형(d)과 비교하였다. 넷째, 다집단 요인분석에서 대안모형들에 대한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이유가 미국과 한국 간 그릿과 열정의 요인구조 차이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각각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요인분석의 과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많은 이견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형태동일성과 측정단위동일성을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χ^2값을 확인하였으나 χ^2값은 표본크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함께 검토하였다(김수영, 2016; Boomsma, 2000; Kline, 2011; West, Taylor & Wu, 2012).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CFI가 0.95이상, SRMR이 0.08이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였으며, RMSEA는 0.05 이하는 매우 좋은 적합도, 0.05～0.08은 괜찮은 적합도라고 제안한 Browne과 Cudeck(1993)의 기준에 따랐다. 추가적으로 모형의 비교를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보고하였다. 동일한 자료에서 AIC가 더 작은 값을 가지는 모형을 더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김수영, 2016).

결 과

국가별 주요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흥미의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 조화열정과 강박열정 그리고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야 한다는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왼쪽 아래(lower triangle)는 미국 대학생 참여자들의 상관계수이고 오른쪽 위(upper triangle)는 한국 대학생 참여자들의 상관계수를 가리킨다. 상관분석 결과, 미국과 한국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는 흥미의 지속성이 조화열정과 정적 상관(r=.13, p<.05), 강박열정과는 부적 상관(r=-.34, p<.01)이 유의미했다.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에게서 흥미의 지속성은 조화열정(r=.03, *ns*), 강박열정(r=-.03, *ns*) 모두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노력의 꾸준함 또한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조화열정과 정적인 상관(r=.33 p<.01)이 유의미하였으나,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둘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r=.13, *ns*).

국가 간 연구 변인들의 평균 차이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간 문화 특성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연구 변인들의 국가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미국과 한국 대학생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에서 먼저,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n*미국=251, *n*한국=208)

		1	2	3	4	5	6
1. 흥미의 지속성		-	.33**	.03	-.03	.19**	-.07
2. 노력의 꾸준함		.49**	-	.13	.06	.53**	.22**
3. 조화열정		.13*	.33**	-	.17*	.16*	.03
4. 강박열정		-.34**	-.08	-.07	-	-.01	.14*
5. 개인지향 성취동기		.32**	.52**	.41**	-.05	-	.28**
6. 사회지향 성취동기		-.07	.25**	.03	.27**	.04	-
왜도	한국 대학생	.35	.04	-.03	.08	-.21	-.21
	미국 대학생	-.04	-.23	-.41	.16	-.22	.04
첨도	한국 대학생	.57	-.42	.13	.03	-.04	.30
	미국 대학생	-.51	-.56	-.25	-.72	-.61	-.23

주. 미국 대학생 참여자들의 상관계수는 왼쪽 아래(lower triangle)에 제시되어 있고, 한국 대학생 참여자들의 상관계수는 오른쪽 위(upper triangle)에 제시되어 있다. *p<.05, **p<.01

표 2. 국가 간 평균 차이

변인		평균(*SD*)		*t*	cohen's *d*
		미국(*n*=251)	한국(*n*=208)		
문화 특성	개인지향 성취동기	4.06(.58)	3.73(.63)	5.76***	.54
	사회지향 성취동기	2.85(.81)	3.31(.69)	-6.49***	.61
그릿	흥미의 지속성	2.99(.89)	2.60(.55)	6.75***	.53
	노력의 꾸준함	3.70(.79)	3.14(.65)	8.24***	.77
열정	조화열정	5.51(.94)	5.01(.85)	6.01***	.56
	강박열정	3.67(1.33)	4.10(1.02)	-3.92***	.36

**p<.01, ***p<.001

높은 반면에(t=5.76, p<.001, d=.54),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49, p<.001, d=.61). 다음으로, 흥미의 지속성(t=6.75, p<.001, d=.53)과 노력의 꾸준함(t=8.24, p<.001, d=.77) 모두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의 경우, 조화열정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반면에(t=6.01, p<.001, d=.56), 강박열정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92, p<.001, d=.36).

다집단 요인분석

형태동일성 확인

본 연구에서는 그릿(흥미의 지속성, 노력의 꾸준함)과 열정(조화열정, 강박열정)이 서로 구별되는 구인임을 검증하기 위해 4요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대안모형들과 비교하였다. 대안모형들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그릿과 열정이 구별되지 않는 1요인 모형, 그릿과 열정은 구별되나 그릿과 열정 모두 일차원적 구인으로 가정하는 2요인 모형, 흥미의 지속성과 조화열정이 묶이고 이것이 노력의 꾸준함 및 강박열정과 구분된다고 가정하는 3요인 모형[a], 흥미의 지속성과 강박열정이 묶이고 이것이 노력의 꾸준함 및 조화열정과 구분된다고 가정하는 3요인 모형[b], 노력의 꾸준함과 조화열정이 묶이고 이것이 흥미의 지속성과 강박열정과 구분된다고 가정하는 3요인 모형[c], 마지막으로 노력의 꾸준함과 강박열정이 묶이고 이것이 흥미의 지속성과 조화열정과 구분된다고 가정하는 3요인 모형[d]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각각에서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이 구별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모형에 대해 전체 연구참여자(N=459)에서 국가에 따라 미국 대학생 집단(n=251), 한국 대학생 집단(n=208)으로 나눈 후,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한 4요인 모형과 대안모형들 각각에 대한 형태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값과 함께 CFI, RMSEA, SRMR, 그리고 AIC값을 사용하였다. 각 형태동일성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양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가장 부합하며, AIC값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요인 모형의 $\chi^2(df$=328, N=459)=614.379, p<.0001로, 유의수준 5%에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H_0은 기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χ^2 검정은 H_0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CFI=.892로 나쁘지 않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RMSEA=.062, SRMR=.064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4요인 모형(χ^2(328)=614.379, p<.0001)과 각 대안모형들을 비교한 χ^2 차이검정 결과, 1요인 모형($\triangle\chi^2$(12)=1278.682, p<.0001), 2요인 모형($\triangle\chi^2$(10)=801.226, p<

표 3. 형태동일성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M	df	CFI	RMSEA(90% C.I.)	SRMR	AIC
1요인 모형	1892.961	340	.415	.141(.135-.147)	.138	29009.905
2요인 모형	1415.605	338	.594	.118(.112-.124)	.121	28536.550
3요인 모형(a)	1040.412	334	.734	.096(.089-.103)	.098	28169.356
3요인 모형(b)	980.901	334	.756	.092(.085-.099)	.097	28109.845
3요인 모형(c)	1061.689	334	.726	.097(.091-.104)	.098	28190.634
3요인 모형(d)	1267.957	334	.648	.110(.104-.117)	.124	28396.901
4요인 모형	614.379	328	.892	.062(.054-.069)	.064	27755.323

.0001), 3요인 모형(a)($\Delta\chi^2(6)=426.033$, $p<.0001$), 3요인 모형(b)($\Delta\chi^2(6)=366.522$, $p<.0001$), 3요인 모형(c)($\Delta\chi^2(6)=447.31$, $p<.0001$), 3요인 모형(d)($\Delta\chi^2(6)=653.578$, $p<.0001$)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그릿과 열정 각각의 구성개념인 흥미의 지속성 및 노력의 꾸준함과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이 서로 잘 구별되는 구인임을 보여준다.

다만, 표 3을 보면 대안모형들에 대한 형태동일성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다. Meade와 Kroustalis(2006)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은 척도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집단에서 공통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각 집단에서 따로 CFA 또는 EFA 모형을 확인하고, 두 집단 모두에서 비슷하게 적합도가 좋지 않다면 형태동일성의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더라도 측정불변성의 확인 단계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 대학생 집단(n=251)과 한국 대학생 집단(n=208) 각각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별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먼저,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chi^2(df=164, n=251)=346.215$, $p<.0001$, CFI=.891, RMSEA=.067, SRMR=.065로 기준치에 가장 부합하며, 대안모형들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AIC값 또한 4요

표 4. 미국 및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국가	χ^2M	df	CFI	RMSEA(90% C.I.)	SRMR	AIC
1요인 모형	미국	1119.534	170	.431	.149(.141-.158)	.143	16605.585
	한국	773.427	170	.388	.131(.121-.140)	.133	12404.320
2요인 모형	미국	866.324	169	.582	.128(.120-.137)	.132	16354.376
	한국	549.282	169	.614	.104(.094-.114)	.106	12182.174
3요인 모형(a)	미국	693.881	167	.684	.112(.104-.121)	.109	16185.933
	한국	346.531	167	.818	.072(.061-.083)	.084	11983.423
3요인 모형(b)	미국	632.798	167	.721	.105(.097-.114)	.105	16124.850
	한국	348.103	167	.816	.072(.062-.083)	.085	11984.996
3요인 모형(c)	미국	595.791	167	.743	.096(.092-.110)	.096	16087.843
	한국	465.898	167	.697	.093(.083-.103)	.099	12102.791
3요인 모형(d)	미국	703.190	167	.678	.113(.105-.122)	.129	16195.242
	한국	564.767	167	.596	.107(.097-.117)	.117	12201.660
4요인 모형	미국	346.215	164	.891	.067(.057-.076)	.065	15844.267
	한국	268.164	164	.894	.055(.043-.067)	.063	11911.056

인 모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요인 모형($\chi^2(164)=346.215$, $p<.0001$)과 각 대안모형들을 비교한 χ^2 차이검정 결과, 1요인 모형($\triangle\chi^2(6)=773.319$, $p<.0001$), 2요인 모형($\triangle\chi^2(5)=520.109$, $p<.0001$), 3요인 모형(a)($\triangle\chi^2(3)=347.666$, $p<.0001$), 3요인 모형(b)($\triangle\chi^2(3)=286.583$, $p<.0001$), 3요인 모형(c)($\triangle\chi^2(3)=249.576$, $p<.0001$), 3요인 모형(d)($\triangle\chi^2(3)=356.975$, $p<.0001$)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chi^2(df=164, n=208)=268.164$, $p<.0001$, CFI=.894, RMSEA=.055, SRMR=.063로 기준치에 가장 부합하며, 대안모형들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AIC값 또한 4요인 모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요인 모형($\chi^2(164)=268.164$, $p<.0001$)과 각 대안모형들을 비교한 χ^2 차이검정 결과, 1요인 모형($\triangle\chi^2(6)=505.263$, $p<.0001$), 2요인 모형($\triangle\chi^2(5)=281.118$, $p<.0001$), 3요인 모형(a)($\triangle\chi^2(3)=78.367$, $p<.0001$), 3요인 모형(b)($\triangle\chi^2(3)=79.939$, $p<.0001$), 3요인 모형(c)($\triangle\chi^2(3)=197.734$, $p<.0001$), 3요인 모형(d)($\triangle\chi^2(3)=296.603$, $p<.0001$)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각각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집단 요인분석의 형태동일성 확인 결과와 같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4요인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단위동일성 확인

4요인 모형에 대한 형태동일성이 성립하였으므로 미국 대학생 집단과 한국 대학생 집단 간에 요인부하가 모두 서로 같다는 제약을 추가한 측정단위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 5에서 형태동일성 모형과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triangle\chi^2(16)=49.565$, $p<.0001$로 측정단위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요인부하가 집단 간에 서로 같다는 측정불변성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위동일성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모수를 집단 간에 다르도록 허락하는 덜 엄격한 개념인 부분측정불변성(Byrne, Shavelson, & Muthén, 1989)을 실시하였다. 부분측정단위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형태동일성 모형의 요인부하 추정치 중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간 큰 차이가 난 노력의 꾸준함 지표변수2의 노력의 꾸준함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와 조화열정 지표변수2의 조화열정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 그리고 강박열정 지표변수4의 강박열정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를 두 집단 간에 다르다고 가정하고 부분측정단위동일성 모형을 추정하였다(김수영, 2016). 형태동일성 모형과 χ^2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triangle\chi^2(13)=10.525$, $p>.05$

표 5. 부분측정단위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RMSEA(90% C.I.)	SRMR
형태동일성	614.379	328	.892	.062(.054-.069)	.064
측정단위동일성	663.944	344	.879	.064(.056-.071)	.076
부분측정단위동일성	624.904	341	.893	.060(.053-.068)	.066

로 부분측정단위동일성이 성립했다. 두 국가 간에 다르도록 허락한 요인부하의 측정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노력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2번 문항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I am a hard worker.'와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2번 문항 '이 활동을 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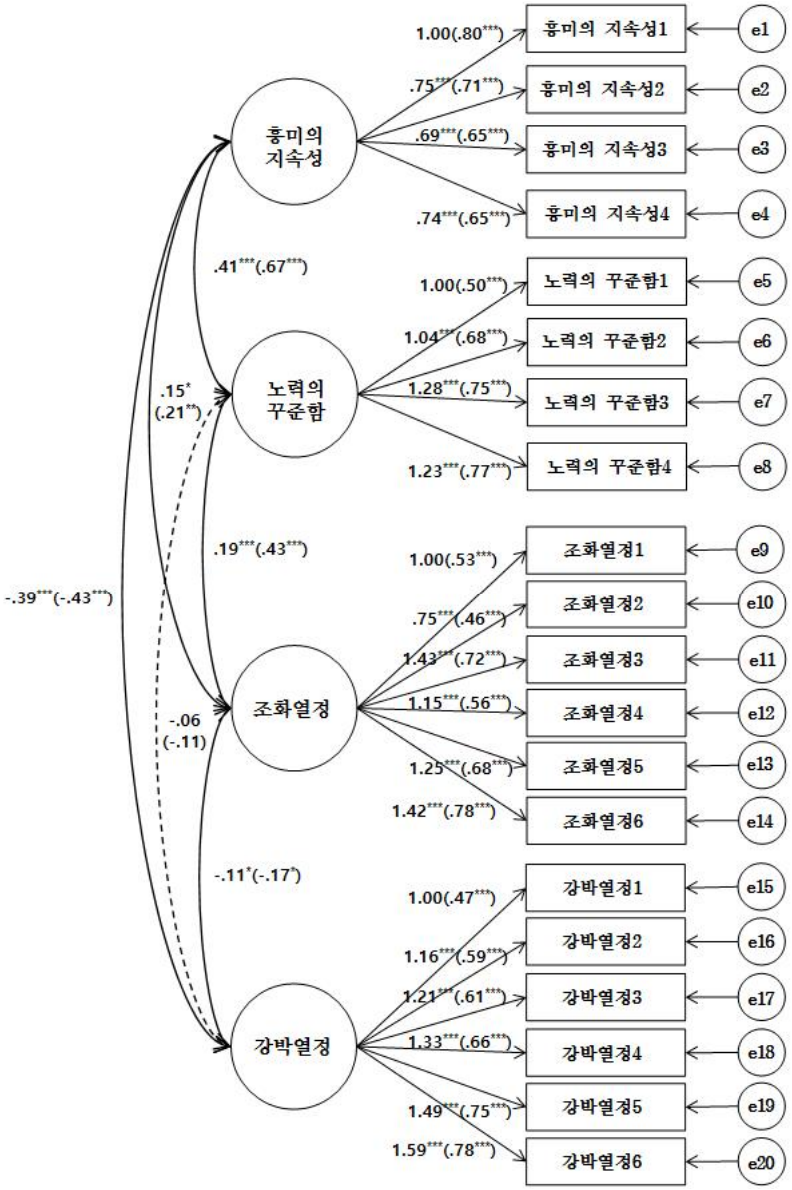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대학생 집단의 그릿과 열정의 요인분석 모형

주. 괄호 밖: 비표준화 계수, 괄호 안: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이 활동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한다.', 'The new things that I discover with this activity allow me to appreciate it even more.', 마지막으로 강박열정을 측정하는 4번 문항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활동만 할 것이다.', 'If I could, I would only do my activity.'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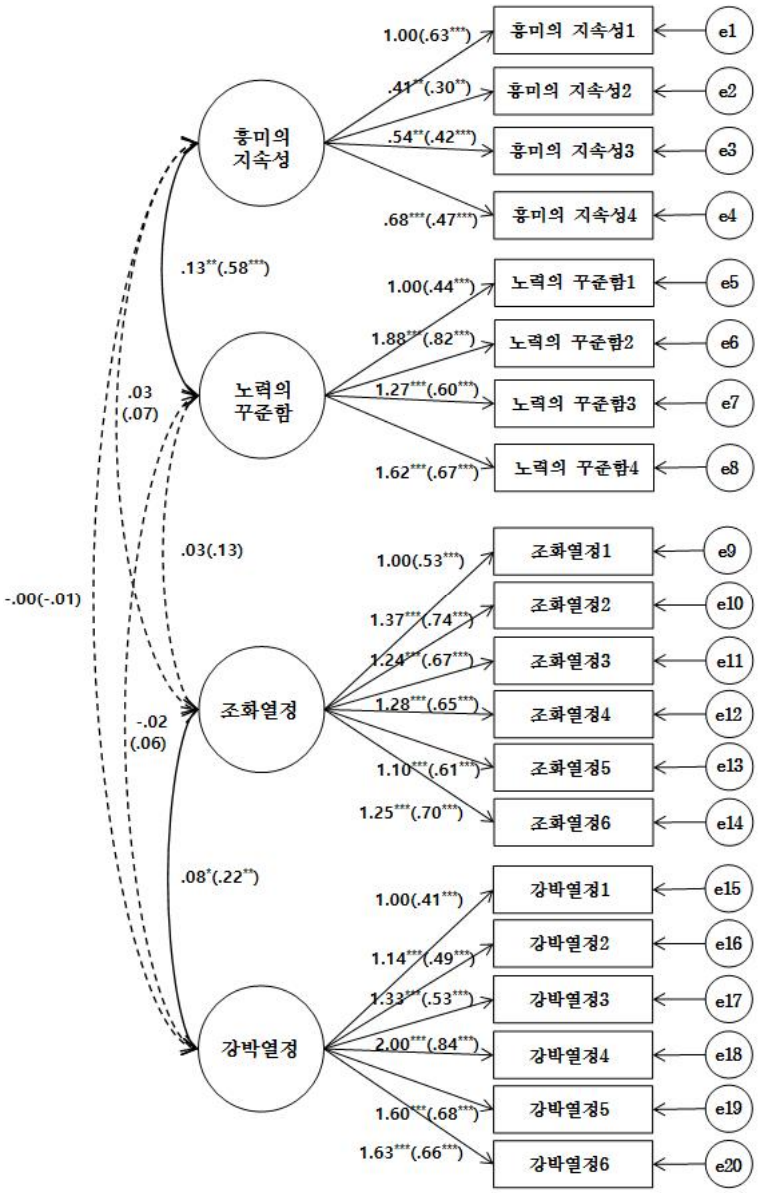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대학생 집단의 그릿과 열정의 요인분석 모형

주. 괄호 밖: 비표준화 계수, 괄호 안: 표준화 계수

$^{*}p<.05$, $^{**}p<.01$, $^{***}p<.001$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미국 대학생 집단과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의 그릿과 열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이다.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 대학생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국 대학생 집단의 경우 흥미의 지속성이 조화열정과는 정적 상관(r=.15, p<.05)을, 강박열정과는 부적 상관(r=-.39, p<.001)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 대학생 집단의 경우 흥미의 지속성은 조화열정(r=.03, *ns*)과 강박열정(r=-.00, *ns*) 모두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의 꾸준함 또한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조화열정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나(r=.19, p<.001),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03, *ns*).

논 의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 간 변별성을 검증하고, 동시에 서구에서 개발되고 주로 논의되어 온 그릿과 열정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에서도 그 개념적인 관련성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Duckworth와 그녀의 동료들의 주장(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처럼 그릿과 열정 간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흥미의 지속성 및 노력의 꾸준함,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의 4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한국과 미국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들이 서로 잘 구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Duckworth 등(2007)과 Vallerand(2015)가 주장한 그릿과 열정 간 개념적 차이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미국과 한국 간 그릿과 열정의 요인구조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릿과 열정 간 상관에서 미국과 한국 대학생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 집단에선 흥미의 지속성이 적응적인 열정인 조화열정과는 정적인 상관을, 부적응적인 열정인 강박열정과는 부적인 상관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에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흥미의 지속성과 열정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대학생들에게서는 노력의 꾸준함이 조화열정과 상관이 유의미하였으나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흥미의 지속성을 열정이라고 정의한 Duckworth 등(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의 주장이 미국에서만 지지되며,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서는 그릿과 열정 간 관련이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 등(2018)의 연구에서 그릿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화열정 및 강박열정 모두 낮은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Vallerand(2015)에 의하면 그릿에는 열정의 개념적 정의에 필수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애정과 높은 가치평가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존의 그릿 척도와 개념이 단순히 지속성, 즉 얼마나 자신의 목표와 흥미를 변경하지 않고 일관되게 몰두하는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릿 척도의 흥미의 지속성을 묻는 문항들(예, '나는

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역).')을 살펴보면, Duckworth 등(2007)의 정의와는 달리 열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릿 개념을 제안한 Duckworth(2016)는 그릿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자율적으로 자신이 흥미 있는 일을 결정하고 지속할 때 흥미가 열정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환경적인 특성이 자율성을 충분히 지지해주는가에 따라 흥미의 지속성 및 그릿의 의미와 영향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몇몇 선행 연구에서 그 가능성이 관찰됐는데, 그릿이 삶의 만족도를 비롯한 안녕감을 정적으로 예측한 서양의 연구 결과들(Salles, Cohen, & Mueller, 2014; Vainio & Daukantaite, 2016)과는 달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Jin과 Kim의 연구(2017)에서 그릿은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자율성과 유능감이 그릿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의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구분하여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필리핀의 연구(Datu et al., 2016)에서는 노력의 꾸준함이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요인들인 삶의 만족,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에 흥미의 지속성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열정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즉 특정 대상에 대한 열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연구 참여자가 10명(모집된 미국 대학생 연구 참여자 318명의 3%)인 미국 대학생 집단과 달리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102명(모집된 한국 대학생 연구 참여자 350명의 29%)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수의 한국 대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와 같은 서구에서 진행된 열정 관련 선행 연구(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 2008)에서는 대학생들의 열정 활동이 대체로 청소년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 입시 위주의 국내 교육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같이 중요한 타인이나 사회가 대신 결정해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Datu et al., 2016; Datu, Yuen, & Chen, 2017b;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2001). 실제로 본 연구에서 미국과 한국 간 문화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개인지향 및 사회지향 성취동기 중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반면에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적인 욕구로서의 개인지향 성취동기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보다 일반적인 반면에 부모나 교사 또는 내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욕구로서의 사회지향 성취동기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욱 일반적이라고 한 Yu와 Yang(1994)의 주장과 일치한다. 특히 한국의 밀착적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서양의 독립적인 부모 자녀 관계와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의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유 중 하나로 유교 문화적인 전통과 관련이 깊은 한국 특유의 부자유친 성정과 부모-자식 기쁨 및 불행 동일체감을 들 수 있다(최상진,

2011). 부자유친 성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부모 자녀 관계의 특징은 부모의 자녀를 위한 희생과 이에 따른 단순한 친밀감의 차원을 넘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측은지심 및 보은의식(報恩意識)이다. 부모 자식 기쁨 및 불행 동일체감이란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는 둘 사이가 구분되기보다 상대방의 기쁨과 고통을 곧 자신의 기쁨과 고통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 및 요구를 따를 때 부모의 기쁨이 유발되고 이는 곧 자신의 기쁨으로 경험되며,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 및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부모의 고통이 유발되고 이는 곧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결국 자녀는 부모의 기대 및 요구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실제로 한국과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 국가인 독일 청소년들의 정서적 자율성을 비교한 연구(김혜온, 이진순, 2006)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동시에 부모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에서 부모에 대한 죄송함, 효(孝)와 같은 토착심리와 부모자녀관계가 한국 청소년 및 대학생의 성취에서 중요함이 나타났다.

한국 특유의 부모 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을 주목한 손영미와 박정열(2021)은 문화 보편적으로 한국에서도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진로나 목표 설정에 간섭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그대로 따라주기를 강요하는 것은 자녀의 미숙한 진로정체감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자율적이면서 관계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였다. 즉, 부모와 가족의 의견이 중요한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함께 부모 자녀 간에 자녀의 흥미, 목표 및 진로 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상호협조적으로 의견을 합치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Seligman (2004)은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해법은 각자의 강점을 파악하고 계발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강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발달시키고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였다. Robinson과 Aronica(2015)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흥미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다양한 재능을 탐험할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결국 명문대학 입학이나 높은 연봉과 같은 좁은 의미의 성공에서 벗어나 자신의 흥미를 찾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인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개념적으로 유사한 그릿과 열정 간의 변별성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개념적으로 관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열정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었으며, 특히 둘 간의 구별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론적인 설명에 그쳐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열정의 요인구조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이 서로 변별되는 개념임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그릿과 열정 개념의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흥미의 지속성은 스스로의 흥미에 의한 장기적인 지구력, 즉 열정과 관련이 높다는 Duckworth 등(2007)의 주장이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만 지지되고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그릿과 열정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화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탐색 되지 않았던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문화란 집단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간의 지각, 신념,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guideline)로서 기능한다(한성열,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 2015; Berry, 2002; Goodenough, 1981). 그릿과 열정은 모두 서구에서 개발되고 주로 논의되어 온 구인으로 그 특성과 기능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필히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에 따른 그릿과 열정 간의 관계 차이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그릿과 열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특성과 그릿과 열정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흥미의 지속성 척도는 그 신뢰도가 .53으로 낮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서 흥미의 지속성의 낮은 신뢰도 및 타당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류영주, 양수진, 2017; 임효진, 2017; Datu et al., 2016; Suzuki, Tamesue, Asahi, & Ishikawa, 2015; Yoshitsu & Nishikawa, 2013). 더욱이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Duckworth 등(2007)의 개념적 정의와 달리 흥미의 지속성 척도가 열정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흥미의 지속성이 단순한 과제 지속성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선행 연구(임효진,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가장 먼저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이라는 그릿의 개념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릿 척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열정 두 개념의 변별성을 검증하고자 모형 간 비교와 함께 다집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요인분석만으로는 그릿과 열정의 구성개념 간 변별성을 모두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준거관련 타당도, 증분타당도 등을 통해 그릿이 열정과 변별되는 개념임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릿과 열정 모두 발달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문화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달적 요인(예: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및 문화적 특성이 그릿과 열정의 문화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의 미국과 한국 대학생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또는 전 연령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범위(예, 국가, 나이 등)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 간 비교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t 검증 결과 그릿의 흥미의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 모두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평균 차이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가장 크게는 반응에서의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적인 정보보다는 긍정적인 정보에 주목하며 자기 자신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동아시아인과는 대조적으로 서양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 바 있다(Heine & Hamamura, 2007; Markus & Kitayama, 1991). 반대로 자기를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는 자기겸양(self-effacement) 경향은 동아시아인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Farh, Dobbins, & Cheng, 1991; Heine & Hamamura, 2007;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특히 흥미의 지속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묻는 문항의 경우 목표 추구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기고양 편파 또는 자기겸양 편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간 절대적인 점수의 비교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문화 간 점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김정은, 이수란, 양수진 (2018). 한국형 그릿(Grit) 특성에 대한 고찰: 높은 그릿집단의 다차원적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131-151.

김혜온,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21-40.

류영주, 양수진 (2017). 내재적 · 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손영미, 박정열 (2021). 상호협조적-독립적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진로합치과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325-350.

안태영, 박서단, 양수진 (2020). 그릿은 어떻게 길러지고 사회화되는가? 지각된 부모의 실패마인드셋 및 부모의 학업기대, 그리고 대학생의 실패내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03-121.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임효진 (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8(2), 169-192.

임효진, 윤여경 (2017). 그릿(Grit)과 과제도전감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29(4), 657-675.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학업적응에서

끈기(Grit)와 목표의식, 성실성, 탄력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18(1), 371-388.

한성열, 한 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심경섭. (2015). 문화심리학. 서울: 학지사.

홍민성, 정예슬, 손영우 (2016). 한국판 열정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1-26.

Arco-Tirado, J. L., Fernández-Martín, F. D., & Hoyle, R. H.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panish version of the Grit-S scale. *Frontiers in Psychology, 9,* 96.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Berry, J. W.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omsma, A. (2000). Reporting analyses of covariance structu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7*(3), 461-483.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é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

Curran, T., Hill, A. P., Appleton, P. R., Vallerand, R. J., & Standage, M.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meta-analytical review of a decade of research on intrapersonal outcomes. *Motivation and Emotion*, *39*(5), 631-655.

Datu, J. A. D., Valdez, J. P. M., & King, R. B. (2016). Perseverance counts but consistency does not! Validating the short grit scale in a collectivist setting. *Current Psychology*, *35*(1), 121-130.

Datu, J. A. D., Yuen, M., & Chen, G. (2017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iarchic Model of Grit Scale (TMGS): Evidence from Filipino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4,* 198-205.

Datu, J. A. D., Yuen, M., & Chen, G. (2017b). Grit and determinatio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27*(2), 168-176.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Duckworth, A., & Gross, J. J. (2014). Self-control and grit: Related but separable determinants of succes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19-325.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ersonality Science and Indiviual Differences, 5*(36), 1-12.

Farh, J. L., Dobbins, G. H., & Cheng, B. S.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A comparison of self ratings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1), 129-147.

Goodenough, W. H. (1981).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Boston.* MA: Addison-Wesley.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Jin, B., & Kim, J. (2017). Grit, Basic Need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8,* 29-35.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6), 1245.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T: The Guilford Press.

Lalande, D., Vallerand, R. J., Lafrenière, M. A. K., Verner Filion, J., Laurent, F. A., Forest, J., & Paquet, Y. (2017). Obsessive passion: A compensatory response to unsatisfied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85*(2), 163-178.

Li, J., Zhao, Y., Kong, F., Du, S., Yang, S., & Wang, S. (2018).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short grit scale among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6*(3), 291-296.

Lim, H. J., Ha, H., & Hwang, M. H. (2016, April). *The effects of grit on academic success among adult college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Washington, DC.

Mageau, G. A., Vallerand, R. J., Rousseau, F. L., Ratelle, C. F., & Provencher, P. J. (2005). Passion and gambling: Investigating the divergent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gambl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1), 100-118.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arsh, H. W., Vallerand, R. J., Lafrenière, M. A. K., Parker, P., Morin, A. J., Carbonneau, N., Jowett, S., Bureau, J. S., Fernet, C., Guay, F., Salah Abduljabbar, A., & Paquet, Y.

(2013). Passion: Does one scale fit all? Construct validity of two-factor passion scale and psychometric invariance over different activities and languag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96-809.

Meade, A. W., & Kroustalis, C. M. (2006). Problems with item parceling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tests of measurement invarianc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9(3), 369-403.

Ratelle, C. F., Vallerand, R. J., Mageau, G. A., Rousseau, F. L., & Provencher, P. (2004). When passion leads to problematic outcomes: A look a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2), 105-119.

Robinson, K., & Aronica, L. (2015). Creative schools: Revolutionizing education from the ground up. Penguin UK.

Salles, A., Cohen, G. L., & Mueller, C. 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resident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7*(2), 251-254.

Seligman, M. E.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Singh, K., & Jha, S. D. (2008).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nd grit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Indian Academy of Applied Psychology*, *34*(2), 40-45.

Strayhorn, T. L. (2014). What role does grit play in the academic success of black male collegians at predominantly white institutions?. *Journal of African American Studies*, *18*(1), 1-10.

Suzuki, Y., Tamesue, D., Asahi, K., & Ishikawa, Y. (2015). Grit and work engagement: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0*(9), e0137501.

Triandis, H. C. (2001).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 (6), 907-924.

Tyumeneva, Y., Kuzmina, J., & Kardanova, E. (2014). IRT analysis and validation of the Grit Scale: A Russian investigation.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of Higher School Higher School, 24,* 33.

Vainio, M. M., & Daukantaitė, D. (2016). Grit and different aspects of well-bei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via sense of coherence and authentic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2119-2147.

Vallerand, R. J. (2008). On the psychology of passion: In search of what makes people's lives most worth living. *Canadian Psychology/ Psychologie Canadienne*, *49*(1), 1.

Vallerand, R. J.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New York: Oxford.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Vallerand, R. J., & Houlfort, N. (2003). Passion at work. *Emerging perspectives on values in organizations*, 175-204.

Vallerand, R. J., Mageau, G. A., Elliot, A. J., Dumais, A., Demers, M. A., &Rousseau, F. (2008). Passion and performance attainment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3), 373-392.

Vallerand, R. J., Salvy, S. J., Mageau, G. A., Elliot, A. J., Denis, P. L., Grouzet, F. M., & Blanchard, C. (2007). On the role of passion in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75*(3), 505-534.

Vainio, M. M., & Daukantaitė, D. (2016). Grit and different aspects of well-bei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s via sense of coherence and authenticit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5), 2119-2147.

West, S. G., Taylor, A. B., & Wu, W. (2012). Model fit and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09-231.

Yang, K. S., & Yu, A. B. (1988, August). *Social-and individual-oriented achievement motive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Chine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for the XXIV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Sydney. Australia.

Yu, A.-B., & Yang, K.-S. (1994). The nature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collectivist societies. In U. Kim, H. C. Triandis, Ç. Kâğitçibaşi, S.-C. Choi, & G. Yoon (Eds.),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Vol. 1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 239-26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Yoshitsu, J., & Nishikawa, K. (2013). Development of the Japanese Grit Scale. *Japanese Journal of research on Emotion*, *20*, 12.

논문 투고일 : 2021. 09. 04
1 차 심사일 : 2021. 09. 12
게재 확정일 : 2021. 10. 12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4, 411~434.

Is Grit Different from Passion? Assess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Through the Use of Multiple-Group Factor Analysis

Jungeun Kim **Sujin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discrimination between grit and passion; and to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passion between eastern and western culture. The participants were 208 Korean and 251 American undergraduates. Multiple-group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model of four (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s, harmonious passion, and obsessive passion) factors by configural invariance and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Also we fou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nsistency of interest and harmonious passion as well 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nsistency of interest and obsessive passion in the American sample.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grit(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s) and passion(harmonious passion, obsessive pass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Korean sample. The results suggest that grit is not accompanied by passion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Findings empirically highlight the distinctiveness of grit and passion an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differences in grit and passion, which were usually discussed western cultures.

Key words : grit, harmonious passion, obsessive passion, multiple-group analysis, cross-cultural differences